

배포 일시

2025. 2. 26. (목)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임지웅 사무국장 010-7546-8648
진우성 공보국장 010-10 2017 0584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책임과 거짓으로 점철된 최종자백, 조속한 파면만이 답이다.

- 윤석열은 헌법 파괴 주범이자 명실상부 내란수괴
- 윤석열에게 ‘청년’은 내란혐의 면피 위한 도구일 뿐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종의견진술은 내란혐의 최종자백이나 마찬가지다.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임을 실토했고, 변명과 거짓, 무책임과 뻔뻔함으로 일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과 거짓뿐이라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어렵다.

국민들은 12·3 내란의 밤을 선명히 기억한다. 극우 유튜브가 만들어놓은 음모론에 심취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자,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헌정을 문란케 한 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통해 국민 “처단”을 시도한 자, 바로 윤석열이다. 헌법 파괴 주범이자, 명실상부 내란수괴이다.

이 와중, 윤석열은 ‘청년’을 감히 입에 올리며 청년세대를 우롱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강변했다.

작년 2월, 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R&D 예산 삭감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이

유로 “입틀막”을 당했다. 청년일자리 정책 예산은 마구잡이로 삭감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청년일자리가 12개월 연속 월평균 3.1만 개 감소했다. 작년 11월에는 10대·20대 신규채용이 2018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각 평균 연령이 60세를 상회했고, 30대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윤석열이 말하는 ‘청년’은 그저 자신의 내란혐의를 면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이 분명하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2030세대 폭도들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경찰 폭행, 사법부 파괴, 헌정질서 교란을 두고 “나라 지키기”라고 두둔했다. 윤석열의 뇌구조 속에 ‘청년’은 오직 내란에 동조하는 폭도들이었는지 의심해 볼 대목이다.

이젠 반성도 사과도 필요 없다. 헌법 파괴 주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